

국가균형발전과 미래혁신산업을 선도하는 충북 ! ‘대한민국 신성장중심’ 충북의 대도약 ! 이재명은 합니다!
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

“국가균형발전과 미래혁신산업을 선도하는 ‘대한민국 신성장중심’ 충청북도 !” 를
만들기 위한 7대 공약 발표

충청북도 7대 공약

- ① 충청권 메가시티 도심연결 철도·공항 인프라 확충
- ② 강호축 고속철도망 조기 구축 및 미래철도산업 육성
- ③ 충북 동부축(백두대간 연계) 고속도로 건설 추진(영동~보은~괴산~제천~단양)
- ④ 바이오·시스템반도체·이차전지·에너지·수소산업 등 신성장산업 육성
- ⑤ 지역 첨단산업 맞춤형 AI(인공지능) 영재고 설립 지원
- ⑥ 환경복원 생태휴양지 조성 및 스포츠산업 육성·전통무예 세계화 지원
- ⑦ 청주교도소 등 이전 추진

-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2일 “국가균형발전과 미래혁신산업을 선도하는 ‘대한민국 신성장중심’ 충청북도” 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핵심공약을 이행할 것을 충청도민과 국민 앞에 약속했다.

○ 이날 이재명 후보가 “충북의 변화와 대도약을 다시 한 번 준비하겠다” 는 굳은 각오를 다지며 발표한 충북 7대 핵심공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○ 첫째, 충청권 메가시티 실현을 위해 주요 도심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과 청주공항의 인프라를 확충하겠다.

이 후보는 완전한 충청권 메가시티 실현을 위해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대전~세종~충북 광역철도는 반드시 ‘청주도심을 통과하는 노선’ 으로 건설토록 하겠다고 밝혔다.

또한 청주공항~혁신도시~동탄 간 광역철도를 조속히 건설하고, 지난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‘중부권 동서횡단철도(서산~천안~청주~괴산~울진)’ 와 ‘중부내륙선 지선(음성 감곡~혁신도시)’ 이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.

청주국제공항은 대형항공기 이착륙과 항공안전을 위하여 활주로 재포장을 적극 지원하고, 활주로 연장과 여객청사·화물청사의 확충은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하는 등 행정수도 관문공항이자 중부권 거점공항으로서 공항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.

○ 둘째, 강호축 고속철도망을 조기 구축하고, 미래철도산업을 육성하겠다.

이 후보는 강호축 개발을 위해서 현재 추진중인 충북선철도 고속화를 조기에 추진하여 강원~충북~호남을 연결하는 X자형 고속철도망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.

또한 미래철도산업 육성을 위해서 철도종합시험선로와 완성차 시험 연구시설, 철도교통 관제센터 등 R&D 기반이 집적되어 있는 충북 오송에 ‘철도산업 국가산단’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.

○ 셋째, 백두대간과 연계한 충북 동부축 고속도로망 건설로 충북경북의 상생발전 및 충북과 강원을 연결하는 동서 5축 고속도로를 완성하겠다.

이 후보는 이미 국가계획에 포함된 영동~옥천~보은~증평~진천 간 고속도로는 조기 추진하고, 보은~괴산~충주~제천~단양을 잇는 고속도로는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.

충북과 강원도를 연결하는 동서5축 고속도로망 완성으로 전국 어디서나 대한민국 생태계의 보고인 월악산-속리산-소백산 등 백두대간권 관광자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.

○ 넷째, 바이오·시스템반도체·이차전지·에너지·수소산업 등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겠다.

이 후보는 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▲충북 오송 바이오 의약품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 건립 ▲제천 천연물 향(香)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천 인공지능 융합기술센터 구축 ▲충북 오창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징 플랫폼 구축

▲충북 오창 글로벌 이차전지 R&D 선도 플랫폼 구축 ▲혁신도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▲음성, 충주그린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▲제천, 단양 저탄소 청정연료 생산 거점 육성 등을 약속했다.

또한 차세대 다목적방사광가속기와 부대연구시설 건립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.

○ 다섯째,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디지털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첨단산업 맞춤형 AI(인공지능) 영재고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.

이 후보는 충북이 기반을 갖추고 있는 첨단산업분야에는 ‘첨단산업 맞춤형 디지털인재’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하여 AI 분야의 핵심 인재를 육성하는 ‘AI 영재고 설립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.

○ 여섯째, 하천 생태계 복원과 친수여가시설로 국민쉼터를 조성하고, 스포츠산업 육성과 전통무예 세계화를 적극 지원하겠다.

이 후보는 미호강의 수질 개선과 수량 확보를 통해 하천의 생태계를 복원하여 활용성을 높이고, 친수여가공간 조성으로 제대로 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‘미호강 프로젝트’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.

또한 충북 동부권(괴산~보은~옥천~영동)의 백두대간권을 자연친화적 산림관광거점으로 조성하고, 충주~제천~단양의 충주호 일원을 연계한 에코순환루트를 조성하여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휴양관광을 위한 ‘국민쉼터’로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.

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활용한 스포츠테마타운 조성을 지원하고, 충북이 주도해 온 ‘전통무예 계승 및 무예 세계화사업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.

○ 일곱째, 시민들의 숙원사업 해결과 청주 서남부권 발전을 위해 청주교도소 이전을 추진하겠다.

이 후보는 청주 미평동에 건립된 지 40여년이 지난 청주교도소가 노후화되고, 청주시 도심확장에 따라 서남부권 개발의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그동안 이전비용과 대체부

지 문제로 청주교도소 이전이 지연돼 왔지만 이번에는 이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.

- 이재명 후보는 충북 7대 핵심공약 발표를 마무리하면서, “충북이 만들어 낸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의제인 강호축을 중심으로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균형성과 지방분권을 통한 민주주의의 눈부신 발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” 며 “충북의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, 신재생에너지, 반도체, 이차전지, 수소, 철도산업 등 미래신성장사업도 적극 지원하고, 충북이 지역 불균형과 소외 없이 고르게 발전하도록 하여 충북의 성장이 공정성장의 귀감이 되도록 하겠다” 고 강조했다. (끝)